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2호 2009년 10월 1일

GLOBAL
COMPACT
KOREA
NETWORK
NEWSLETTER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목 차

1. 협회 주요 행사결과
2. 세계동향
3. 신규가입사 및 회원활동 동정
4. COP 제출 현황



“Seal the Deal (코펜하겐 협상을 마무리 합시다)”는 12월 7~18일에 걸쳐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15)에서 정당하고, 균형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교토의정서 후속체제를 촉구하는 유엔캠페인입니다. 동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는 UNGC 회원사의 참여를 촉구합니다.

CEO의 성명서를 seal.the.deal@unglobalcompact.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뜻깊은 추석 연휴 되시길 기원합니다.

UNGC COP (이행보고서)를 Bloomberg 에서

(2009. 9. 16 뉴욕) -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시,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고려를 장려하기 위하여 Communications on Progress(COP)로 알려진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 발행하는 연간 이행보고서가 BLOOMBERG PROFESSIONAL®에서도 이용가능해집니다. COP 에 관한 정보는 UNGC 의 기능을 통하여 BLOOMBERG 사용자들에게도 열람가능해집니다.

COP 는 BLOOMBERG PROFESSIONAL® 서비스를 통해서 검색가능하며, COP 의 종합적 데이터와 뉴스와 분석도구들은 BLOOMBERG 사용자들로 하여금 전세계의 공기업과 사기업의 ESG 성과를 알 수 있게끔 합니다. 현재 COP 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웹사이트에서도 열람가능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COP 를 기업의 성과분석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투자커뮤니티와 이해 관계자들을 장려합니다.

1. 협회 주요행사 결과

1) 8 월 18 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위한 조찬간담회”

- 장소: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
- UNGC 회원사 CEO 120 명 등 150 여명 참석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기업인들의 책임성과 경영 윤리의식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지적하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서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 에너지 개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기업과 사기업의 활동이 일치되었을 때 유엔글로벌콤팩트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남승우 회장을 대신하여 이승한 이사 (홈플러스 그룹 회장)가 환영사를 하였고, 12 월에 열릴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 및 2010 년 4 월에 있을 B4E 회의와 6 월의 글로벌콤팩트 정상회의에의 성원을 촉구하였습니다
- UNGC 한국협회에서 우수 이행보고서 (Notable COP)로 선정된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의 대표에게 기념 상패를 전달하였습니다



2) 9월 8일 “기후변화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국제심포지움”

- 장소: 창원 컨벤션센터 (CECO) 컨벤션 홀
- 주최: 경남발전연구원, 경상남도
- 주관: 경남녹색성장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UN Global Compact의 로컬 네트워크 총괄 담당자인 Soren Petersen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하였고, UNGC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이 ‘기후변화, Post-Kyoto 체제에 대한 논의 전망’에 대해 강연하였습니다. 영국, 호주, 스웨덴 대사관에서는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각국의 상황을 소개하였습니다.
- 이번 심포지움은 UN Global Compact 가치의 지방 확산을 위한 시도였고, 첫번째 공동 국제 심포지움이었습니다.



3) 9월 9일 제 4회 UNGC 비즈니스 리더 포럼

- 장소: 하얏트 호텔 남산 5
- Soren Petersen, UN Global Compact 로컬 네트워크 총괄 담당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강연하며, 한국의 기업들이 UNG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문제에 적극

참여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에 신속히 투자하는 것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서로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4) 9월 14일 “유엔글로벌콤팩트 인권원칙과 인권통합경영에 관한 기업간담회”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재단
- UN Global Compact 인권, 노동 담당관인 Ursula Wynhoven 이 “글로벌콤팩트 인권원칙과 인권통합경영 동향”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인권 경영 사례 발표를 통한 한국 기업의 인권통합 경영 미래”를 주제로 HP Korea 와 유니베라에서 사례발표를 하였습니다. 해외의 인권통합 경영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의 국내기업에의 시사점을 모색하며, 한국 기업에서의 인권 이슈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회의였습니다.

5) 9월 15일 “유엔글로벌콤팩트 노동기준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관한 국제세미나”

-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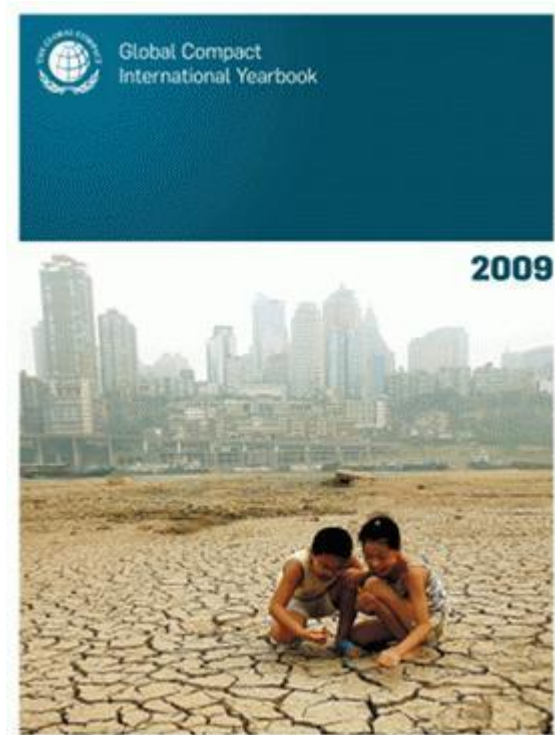
- Ursula Wynhoven 유엔글로벌콤팩트 인권/노동 담당자는 “UN 글로벌콤팩트와 양질의 노동의제 실현”에 관하여 발제하였고, Jim Baker 국제산별연맹협의회(CGU) 코디네이터는 “UN 글로벌콤팩트와 노동 기준”에 대해 국제노동운동의 대응과 참여를 중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노동 문제의 사회적 대화 촉진”이라는 주제로 한국 기업의 노사관계 우수 사례 발표가 있었는데, LG 전자 노경팀과 노사정 위원회에서 설명하였음. 오후 세션에서는 한성대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대해, 숙명여대 경영학과 권순원 교수가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노동 기준을 중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국제 세미나는 노동이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사회적 대화 증진의 장이었고, 특히 한국 기업들의 노사관계의 구체적인 사례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 세계 동향

글로벌콤팩트 국제 연보, 글로벌 도전들을 조명하고 사업적 관행을 명시하다 (2009.9.15 뉴욕) - 국제적 아젠다인 지속가능성 이슈를 조명하고 많은 종류의 기업관행을 명시한 글로벌콤팩트 국제 연보 (*Global Compact International Yearbook*)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지원하에, 2002년부터 글로벌콤팩트의 회원사로 활동 중인 독일의 Macondo Media Group 이 제작하였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인사말, 국제적인 전문가와 리더들의 많은 에세이들과 함께 글로벌콤팩트 국제 연보는 기후변화에서부터 수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위기에 이르는 범위의 비판적인 이슈들과 글로벌 비즈니스 관련사항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2009년 판에는 John Elkington, Filiz Demirayak, Lord Anthony Giddens, Robert O. Keohane, Georg Kell, David Nabarro, Andreas Suchanek, and Pasquale Steduto.와 같은 저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동 연보는 다양한 지역에서 각종 분야를 대표하는 32개의 사업체의 매일 업무와 파트너십 프로젝트 등의 비즈니스 전략에서 글로벌콤팩트 10대원칙의 이행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 예들은 UN과 시민사회 대표단체들을 포함한 편집자문위원회에 의하여 검토되었습니다.

글로벌콤팩트국제 연보는 상업적인 출판물이 아닙니다.

4회 CEO 수자원 관리 책무 실무회의 개최

(스톡홀름, 2009년 8월 19일) - 유엔 글로벌콤팩트 CEO 수자원 관리책무 기구는 Pacific Institute와 공동으로 100여명의 수자원 전문가와 관련 근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8월 16-18일 스톡홀름에서 제4회 실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CEO 수자원 관리책무에 대한 일반 대중 정보 브리핑 세션과 공공 정책에 대한 기업의 책임 참여, 수자원 및 인권, 그리고 수자원 공개의 세 주제에 중점을 둔 이해관계자 활동 세션을 포함하였습니다. CEO 수자원 관리책무는 수자원관리에 대한 인권에 기초한 접근의 다양한 측면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질 및 인권 활

동 그룹을 형성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성 센터 설립 계획

(샌프란시스코, 2009. 7. 30) - 샌프란시스코 시는 오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기술을 조사 및 개발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센터(이하 UNGC센터)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Gavin Newsom 시장은 “UNGC센터를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하는 것은 우리 시의 세계 정의와 지속가능성 참여를 증강할 것이다”라며, 센터는 연구원, 기업, 기구, 시민 사회 단체 및 그 외에 기후변화 관련 문제 제기에 공헌하는 사람들의 국제적인 목적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Gavin Power 유엔글로벌콤팩트 부국장은 “캘리포니아,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수년간 환경 지속가능성의 선두에 있었다”며, 또한 “샌프란시스코가 유엔의 본고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깊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UNGC센터는 도시적인 녹색기업과 주거지역으로 재개발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Hunters Point Shipyard에 설립될 예정이며, 2012년에 개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신규 가입사 및 회원활동 동정

10월 1일 현재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한국 회원사는 모두 158개입니다. 동명전기(7/27), UNWTO 스텝 재단(8/18), 서울 충무로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8/31),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관리공단 (9/1), 하이닉스 반도체 (9/29)가 신규 가입했습니다.

가입을 축하드리며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4. COP 제출 현황

COP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구은행(9/22), STX(9/16), 성진지오텍(9/13), 한국마사회(9/10), 코트라(8/20), 신용보증기금(8/9), 롯데쇼핑(8/12), 한국가스공사(8/6), 하나은행(7/31), 대한상공회의소(7/29)

COP 제출기한이 지났음을 알려드립니다.

경향신문, 마이더스 에셋, 한국석탄공사, 아시아나 항공, 창대섬유, 동일 방직, 이건 산업, 기업은행,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신대륙,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남부발전, 한국원자력연료, 한국농어촌공사, RNL 바이오, 삼정 KPMG, SBS, 한겨레신문, 유유제약, 트레블러스 호텔 제주

COP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30일 미만)

에코프론티어, 법무법인 태평양, 에코아이, 이라이콤, 아리랑 TV, 한국광물자원공사, CJ

회원비 납부 현황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회원사의 연회비로 운영됩니다. 현재 회원사

연회비 납부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회비안내 및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2009년 7월 이후 아래의 회원사가 회비를 납부해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 UN WTO 스텝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 기업은행, 한국증부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5가 파크타워 103동 1705호

전화: 02-749-2149 팩스: 02-749-2148

e-mail: ungckorea@gmail.com 홈페이지: www.unglobalcompact.kr